

한국문화교류 소식

51호 2024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 ICKC 해외역사문화 탐방기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세계인임을 깨닫다

ICKC 사절단이 지난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와 '남아시아 국제태권도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선친인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의 밝은사회운동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되었고,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했고 199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세계적 단체입니다. ICKC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에 매년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여 우즈베키스탄(2017년), 캄보디아(2018년), 네팔(2019년), 스리랑카(2020년), 폴란드(2023년) 등 세계 각지 저개발국가의 태권도 문화 진흥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탐방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의의를 되새기고자 이석복 차세대 미래연구원 이사장님의 탐방기를 수록합니다. 이석복 이사장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이석복

(예)육군소장, 차세대 미래연구원 이사장

인천공항에서 8시간 비행하여 생전 처음 방문한 인도 대륙 남단 인근의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Sri Lanka)의 제 1도시(옛 수도) 콜롬보(Colombo)에서 '남아시아 국제태권도대회'와 '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를 참관하는 희귀한 경험을 하였다.

우리 ICKC 일행이 지난 2023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

부(GCS International)'의 총재를 겸임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전 경희대 총장)가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총재이기도 한 인연 덕분이다.

좀 더 정확히 내 경우를 얘기하면 나와 30년 지기(知己之友)인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의 동참 제의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는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두 국제대회를 참관하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뜨겁게 자랑스러웠고 감동을 넘어 경이스럽기까지 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원하여 세계인이 단련하는 스포츠가 되었고, 우리 고유의 흥익인간 정신도 태권도를 통해 세계 평화운동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12월 7일 콜롬보의 실내 스타디움에서 조정원 총재가 태권도 대회 시상식에서 연설을 할 때, 그리고 시상할 때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스타디움을 꽉 메운 관중은 물론 스리랑카 체육부 장관 등 남아시아 10여개 국가들의 임원들과 젊고 어린 1,500여명의 선수들이 날렵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진정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광

할 때 둔감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요르단 및 시리아 난민들과 스리랑카를 비롯해 캄보디아, 네팔 등 8개국에 '케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태권도 지원으로 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ICKC에서 태권도발전기금으로 '케어스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효용성있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자괴지심마저 들었다.

이러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정성을 다한 각고의 노력이 스리랑카에서도 한국 대사와 교민들까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대하게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날, 우리가 묵고 있던 갈라다리(Galadari)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는 직접 참가한 14개국 대표와 화상으로 40여 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 12월 8일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에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총재에게 태권도발전기금(미화 1만 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ICKC의 이사이기도 한 강석재 GCS국제본부 사무총장이 유창한 영어와 재치로 행사를 노련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의 전쟁과 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는 벨기에 대표의 화상 발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담은 '2023 콜롬보 평화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는 등의 순서에 약 5분간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특이한 장면에서 나는 이 행사에 빨려들어 가는 듯이 집중하게 되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격언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대회에서는 '평화는 개선(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귀하다', '태권도를 통한 세계 평화', '마음에 평화 가슴에 태권도', '제42회 유엔 평화의 날', '9월 21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 등의 영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원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번 국제대회에 우리 한국에서는 ICKC에서 박의근 재정위원장 외에 김용구 전 국회의원(ICKC 고문, (주)신동 회장), 이향구 진일세무법인 대표와 내가 참여하였고, 세계 태권도연맹과 GCS클럽 임원분들 13명 등 모두 17명이 동참하였는데, 모두 국위선양과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었다.

두 행사를 지켜 본 김용구 전 국회의원은 "우리는 이제 세계인이다"라는 말로 깊은 감동을 받은 심정을 표현하였다.

그렇다. 우리의 위상을 이 이상 더 어떻게 잘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 말에 크게 울림이 왔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조금 더 잘하면 정말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세계인'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엇나간 정치인들을 만든 책임감을 느껴야 진정 세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두 국제 행사를 보람있게 참관한 후 우리는 흥분한 마음으로 다음 날부터 이틀간 스리랑카의 이모저모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 뜻깊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한 ICKC 사절단. 왼쪽부터 김용구 전 국회의원,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조정원 총재, 필자, 이향구 진일세무법인 대표.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6만 5천 제곱 킬로미터)의 영토에 온화한 열대 기후의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 깊은 세계적 불교문화 유산과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때(1972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국민 소득이 높았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실론(구 국가명) 홍차가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싱할리족(75%) 다음 인구 2위(15%)인 타밀족의 독립 투쟁으로 27년간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발을 잘못 들여 놓아 얼마 전 국가부도를 선언할 정도로 피폐했다고 했다. 역시 잘못된 정치인들 탓이다.

지금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국가지도자와 중국을 무척 원망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 일부 땅을 주고 빚을 탕감받으면서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고 있었다.

콜롬보 공항에서부터 거리 곳곳에 걸린 삼성과

LG 상호가 우리나라와 낯설지 않은 관계를 일부나마 보여주는 듯 했다.

이번 탐방 기간 내내 대형버스로 이동시에는 스리랑카 경찰 콘보이(convoy)가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줬 스리랑카 정부의 배려에 감사했다.

나는 귀국하면서 문득 2023년에 실패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운동에 정부와 유치위원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조직을 적극 활용하였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하는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격’의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만큼 세계태권도연맹은 우리나라가 키워 온 귀중한 세계적 자산이어서 국제적 이슈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스리랑카 방문은 아직 덜 숙성된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미 세계인으로 우뚝 서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값진 여행이었다.



▲ 12월 7일 열린 국제태권도대회에서 함께 기념촬영한 조정원 총재와 우리 ICCK 사절단. 왼쪽부터 이항구 진일세무법인 대표, 박의근 ICCK 재정위원장, 조정원 WT 겸 ICCK 총재, 필자, 김용구 전 국회의원.

깜봇 마을, 임마누엘 캄보디아의 시작과 성장



이 은 경

(사)임마누엘 캄보디아 이사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우기 때 비를 향아리에 담아 놓습니다. 향아리 물에는 벌레와 먼지가 떠다니지만 그것이 그 마을 사람에게 가장 깨끗한 식수이고, 그 물을 다 쓰게 되는 건기가 되면 집 옆의 웅덩이 같은 호숫물을 마셔야 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깜봇'이라는 마을에 정수시설을 설치해 준 재미동포 독지가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된 이후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곳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의 집은 바

닥이 송송 뚫린 사다리로 올라가야 하는 나무집이었는데 지붕이 새어 바닥에 대야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십 여 년 동안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닭, 소를 키우며 그들을 학교에 보내고 방과후에는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7년 전에도 150여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깔려 있던 비닐 돛자리를 재빨리 나무집 밑으로 옮기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자 몇 군데 전구를 켜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쉬면 벌레들이 코와 입에 들어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두운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학비를 후원받아 아이들을 프놈펜 대학까지 보내고 목사, 교사, 의사 등 각 분야의 훌륭한 청년들로 키워내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계속 기억에 남아 방문이 잦아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시설 설치로 시작된 '깜봇' 마을에 대한 도움은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후원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프로젝트'로 탄생되어 땅을 구입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임마누엘 빌리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빌리지 안에는 코너스톤 국제학교아카데미, 임마누엘 커뮤니티센터, 방과후 학교, 병원까지 설립되어 허허벌판이었던 마을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코너스톤국제학교아카데미’는 유치원, 초등학교, 직원 기숙사가 함께 있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유치원생 7명으로 시작되었지만 매년 한 학년씩 늘어나면서 현재 136명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워 일대일 후원을 통해 장학금, 교복, 생활비 등을 받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인 ‘임마누엘 캄보디아(Immanuel Cambodia)’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임마누엘 커뮤니티센터’는 주변 마을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방과후 영어 교실, 수학 교실, 태권도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드라마와 K-POP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사, 학생, 지역 청년들이 넘쳐나 한국어 교실을 열고자 했으나 프놈펜 수도와 떨어진 관계로 한국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단기 한국어 수업을 위해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찾을 예정이며, ‘고용노동제 한국어시험(EPS-TOPIK)’ 열풍이 가장 높은 캄보디아이기



▲ 캄보디아 마을 아이들의 수업 모습

에 고정적인 한국어 교실 개설이 급선무가 되어 현재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내에 있는 병원은 '임마누엘 빌리지'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병원은 2023년 10월에 한국 의사 두 명이 운영하는 클리닉으로 개원하였으며, 학생들과 그 가족,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프놈펜과 시골 마을 사이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등을 통해 여러 팀들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임마누엘 빌리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교만 있지만 곧 중·고등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시골 마을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회, 직업학교, 공장, 사무실 등을 계속 건립할 예정입니다. 직업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가 이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병원 자립에 한몫을 하며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을 꿈꾸는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열망을 담은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욱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미국과 한국의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임마누엘 빌리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고 있다.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IPC) 위원장 명예 9단 수여받아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는 지난 1월 31일 WT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태권도 지원에 크게 공헌한 앤드류 파슨스(Andrew Parsons)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위원장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했다.

조 총재는 명예단증 수여식에서 “WT 본부를 처음 방문한 앤드류 파슨스 회장 부부를 환영한다. 지난 십여 년간 WT와 IPC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다”며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주신 파슨스 위원장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슨스 위원장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명예 9단증을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태권도계 모든 분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도주의적인 일을 많이 하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조정원 총재를 존경하며 태권도의 가치를 믿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파슨스 위원장은 태권도복을 입고 송관을 격파하는 특별 행사도 보였다.

파슨스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파리에서 열린 월드태권도파라그랑프리과 12월 맨체스터 월드태권도파라그랑프리파이널 대회를 직접 참관하고 짧은 기간동안 발전한 태권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피력한 바 있다.

태권도는 지난 2015년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IPC 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도쿄 패럴림픽 정식종목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2024년 파리



▲ 세계태권도연맹을 방문한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왼쪽)과 조정원 총재

그리고 2028년 LA 대회까지 3연속 정식 종목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파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 태권도에서 메달과

선수 수가 남녀 5체급씩 총 10체급 및 남녀 각각 60명, 총 120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 이는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치뤄진 2020 도쿄 대회와 비교해 체급은 남녀 2체급씩, 참가 선수는 남녀 24명씩 늘어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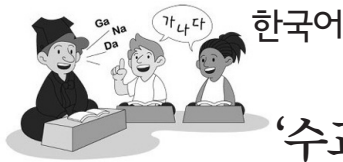
▲ 인사말하는 앤드류 파슨스 회장



▲ 송판 격파 중인 앤드류 파슨스 회장 (왼쪽)



▲ 조정원 총재(왼쪽)으로부터 명예9단증을 받고 있는 앤드류 파슨스 회장



‘수교국’ 쿠바 최고 예술대학에 3월부터 한국어 수업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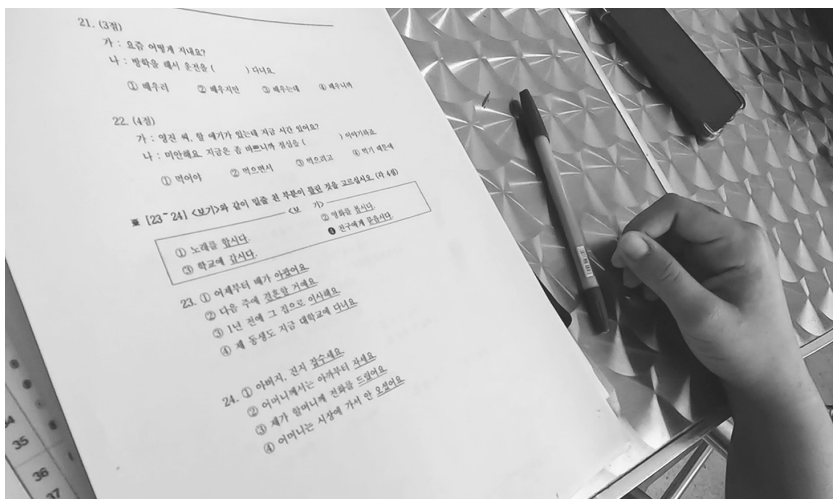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다. 지난 2월 17일 (현지시간) 쿠바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에 따르면 쿠바 예술대학인 ISA(Instituto Superior de Arte)에서 다음 달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범 운영 예정이라고 한다.

수도 아바나에 있는 ISA는 4년제(일부 학과 5년제) 대학으로, 음악·시각예술·연극 등 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쿠바의 관련 분야 최고 교육기관이다. 1976년 설립됐다. 현재 이 학교 내 언어 관련 수업 과목은 스페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일본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쿠바 특성상 의사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는 있으나, 현지에서는 이르면 9월께 정식 교양과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 교육 수요가 컸던 데다 한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수업에 필요한 교재 확보 등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사 출처](아바나=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2024/02/18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8015700087?section=search>



▲ 쿠바 아바나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현지 학생이 한국어 시험 문제를 교재 삼아 공부하고 있다. 2024.2.18



유엔난민기구-세계태권도연맹 협약... “태권도로 난민 자립 강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전해경)는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총재 조정원)과 난민의 자립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한민국 국기(國技)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난민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과 자립을 돕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난민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태권도 프로그램 구축, 난민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수업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들을 통한 협력 강화 등에 나서게 된다.

UNHCR와 WT는 2016년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태권도를 통한 난민 지원을 위해 협력해왔다. WT는 태권도박애재단을 설립해 난민촌 내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5월에 요르단 난민촌에서 열리는 ‘희망과 꿈 스포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WT는 난민 아동에게 다양한 올림픽 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21년부터 이 행사를 열고 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성도윤 기자, 2024/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16800371?section=search>



▲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전해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오른쪽)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 조정원 ICKC 총재,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군장병 태권도 교육 강화 건의

조정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장관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국군 장병의 심신단련과 인격 함양을 위한 태권도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연맹 회장,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겸 ICKC 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김수삼 인사복지실장, 군 체육을 담당하는 조성국 병영정책과장 및 주요 군 간부들이 배석했다.

조정원 총재는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에 신 국방장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양진방 회장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다양한 고난도 국군 태권도 시범을 주문했다.



▲ 군장병 태권도 교육 강화와 태권도계 여러 현안에 대해 환담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과 조정원 ICKC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박의근 재정위원장은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도복을 입은 국군 태권도시범단의 멋진 시범을 언급했다. 현재 1군과 2군에서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 국방장관은 현재 군에는 약 15만 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있으며, 1만 명 이상이 군 복무 기간 중 태권도 단을 취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장관은 군 복무 기간이 과거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단축되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군에서 태권도 교육을 시키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면담 자리에서 조정원 총재는 “지난 2023년은 세계태권도연맹 창립 50주년의 뜻 깊은 해로서 지난 11월 중순에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박물관에서 태권도 발차기상을 올림픽 종목 중 10번째로 설치하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으로부터 세계태권도연맹의 전 세계 난민을 돕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태권도연맹이 ‘올림픽 컵’을 수여 받는 영광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신원식 장관에게 전달한 태권도계 건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이자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5대 정신과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에 따라 저개발국 고아, 난민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에도 태권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인기와 열기는 해외에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태권도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심신단련과 인격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향후 군 교육에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서울 용산구 국방부장관실에서 회동. (왼쪽 네 번째부터 오른쪽으로)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정원 ICKC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강석재 ICKC 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 ICKC 사무국(사무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

지난 2월 ICKC 사무국(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5년여 동안 있었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ICKC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신규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입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게 여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 이전한 남양빌딩은 ‘페토피아동물병원’이 있는 곳으로, ICKC 회원인 페토피아동물병원 홍원표 원장께서 이번 이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오는 3월 총회 의결을 거쳐 ICKC 주소 이전 등기 등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3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재평,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형중,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도무회,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행로,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순영, 정인설,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최 광,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동송갤러리,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양양운수(주), 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234,714,250원

2024년 후원하여 주신 분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성열, 김소진, 김승한, 김시범,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호일, 김홍석,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14일까지 총액 : 10,56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이효진 전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창립 13주년 정기 총회와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_ 2024년 3월 28일(목), 14:30~17:00
- 장 소_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 광화문)
- 프로그램_ [총 회] 개회사 및 경과보고, 안건 상정 및 승인
[포럼] 강 연 :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
강연자 : 조남철(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前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찾아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 02-2001-7652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홈페이지 <http://www.ickc-seoul.net>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ICKC와 함께 하시는 분들

- 고문 강성구 前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조준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이효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